

관광객 노래자랑·트로트 공연까지 한자리에 '마량이 들썩'

전북 최대 40% 할인! 다채로운 체험·경품이벤트 풍성

5월 마지막 토요일, 올해도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순항 중인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더욱 다채로운 이벤트와 풍성한 경품으로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영수증 이벤트, 전북 할인 행사, 딸기 컵케이크 쿠키 클래스, 컬러데이 등 풍성한 체험과 혜택으로 구성돼 방문객들에게 오감만족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전북 할인행사에서는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싱싱한 전복을 구매할 수 있다. 오는 31일 당일에는 1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 제출 시, 홍보물품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트로트 공연, 퓨전플랫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며, 마지막에는 3만 원 상당의 경품 추첨도 진행된다.

마량 전방대 카페에서도 다양한 행사

가 진행된다. 오후 2시와 2시45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5분간 진행되는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놀토 내 디지털 판매점 운영자(호렙농원)와 함께하는 딸기 컵케이크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체험비는 1인 3,000원이다. 접수는 전화(061-430-3263)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상황에 따라 당일 현장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컬러데이 이벤트도 진행된다. 초록색 물품(옷, 지갑, 양말 등)을 착용 또는 소지한 방문객이 마량 전방대 카페에서 음료 1잔 이상 주문 시, 추가 1잔 무료제공 혜택(선착순 20명, 4인 이내 1잔)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강진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와 매생이전 등 먹거리를 한층 강화했다. 스타일코를 활용한 다양한 포토존과 AI를 활용한 캐릭터 변환체험 등 시각적 재미와 체험 요소도 추가해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2015년 처음 개장한 이후 2024년까지 112만 명 이상이 다녀가며, 총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4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약 30회 가량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운영 및 판매부스는 5종 29개소로, 횃집 등 음식점 4개소, 수산물



진도군,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 성황리에 운영 중 임신·출산·육아 함께하는 따뜻한 연대

진도군은 지난 3월부터 8주간 '2025년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 1기를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모임은 임신부와 출산부, 영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의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지하는 정서·육아 통합지원 사업이다.

4월 말까지 진행된 1기 모임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산전·산후 교육, 육아 비뚤해 ▲쭉쭉 크는 아기 마사지 ▲오감 특색 촉감놀이 ▲광채수분 크림 만들기 ▲꽃바구니 만들기 ▲영유아 하임리히법, 소화기 사용법 배우기 ▲진도개태마파코 내 아리랑 식물원 견학 등 다양한 체험형 활동이 진행됐다.

엄마와 아기 간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엄마들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의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우울 등 정서를 공유하

며, 자조 모임의 필요성을 스스로 체감하게 한다.

모임에 참여한 한 엄마는 "첫아이의 육아로 하루하루가 막막했는데, 모임 덕분에 같은 고민을 하는 엄마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조언도 큰 힘이 됐고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 시간 덕분에 저도 웃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았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은 지역 내 엄마들이 서로 지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정서적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2기, 3기 등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함께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배섬 엄마모임은 진도군보건소 마음건강팀의 '굿맘 굿데이 디딤돌 모임'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임신부와 출산부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과 정서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보성군은 지난 22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부패 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 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적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교육은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자, 신규 임용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수 강사를 초청해 '마술로 배우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주제로 총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보성군, 2025년 상반기 부패 방지 청렴 교육 실시

"청렴은 선택이 아닌 기본" 실천 중심 교육으로 공직 신뢰 제고

이광수 강사는 마술 퍼포먼스를 접목한 창의적 강의 방식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위반 사례, 공직자 행동강령(특히 갑질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복잡한 법령 해석과 청렴 실천의

방향성을 흥미롭게 풀어내 공직자들의 청렴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김철우 군수는 "청렴 실천은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는 첫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실용성 있는 청렴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성군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청렴을 군정 핵심 가치로 삼고, 공직 사회 전반에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정기적인 청렴 교육과 함께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에도 ▲청렴 실천 결의대회, ▲부패 방지 청렴 추진단 운영, ▲청렴 주의보 발령,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보성/김운기 기자

장흥군, 조미김 가공업체와 유럽 수출 활성화 간담회 마련

ASC-MSC 인증 취득 장흥 무산김의 유럽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

장흥군은 지난 22일 장흥 진정 무산김의 유럽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장흥군 소재 조미김 가공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흥 무산김의 유럽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가공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친환경 김'으로서 장흥군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 수립과 홍보 등의 내용도 회의안건에 포함되었다.

장흥군은 현재 해조류에 대해 관심이 낮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세계 최대 규모의 ASC-MSC 인증을 취득한 친환경 김을 전략 상품으로 선보이며, 친환경 이미지와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장흥 무산김의 유럽 진출 활동을 본격화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장흥군은 2024년도 공모에 선정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4개 김 수출 업체가 지난 5월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 SEA FOOD EXPO GLOBAL 전시회 참관 및 수출 상담, 현지 시장조사를 병행했다.

유럽 시장의 진출과 '노벨 문학도시'인 장흥군의 문화적 가치 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의 친환경 김이 전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 개척을 이어 나가고 국내를 대표하는 친환경 수산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화순군, 고인돌오토캠핑장 '배움캠프' 개최

6월 6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씩 총 2회... 가족 단위 40팀 대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의 가치를 알리고, 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배움캠프'를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총 2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초·중등생 자녀를 둔 가족이 세계유산 고인돌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좌표를 따라가는 고인돌 유적 탐방'을 비롯해 반달돌칼을 직접 만들고 이를 이용한 채소 수확하기, 양각화 문패 만들기 등 고인돌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 신청은 5월 26일부터 네이버 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회

차별 20팀씩 총 40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화순고인돌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운 고인돌사업소장은 "세계유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번 캠프는 책에서만 접하던 고인돌의 가치를 온몸으로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5월 '명랑캠프'를 시작으로, 이번 '배움캠프'를 비롯해 오는 하반기에는 '화순 고인돌 캠핑왕', '별빛 문화공연'까지 고인돌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가족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화순/김종환 기자

곡성군, 생활개선곡성군연합회와 곡성세계장미축제서 '탄소중립 실천' 길거리 캠페인 전개

곡성군은 지난 22일 생활개선곡성군연합회(회장 이지숙) 읍·면 회원 50여 명과 함께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장에서 탄소중립 실천 의식 공유를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운동에 앞장섰다고 전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회원들이 곡성세계장미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금 나부터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외치며 축제장 길거리 홍보활동을 펼쳐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생활개선곡성군연합회는 이번 축제 부스 운영에서도 친환경 실천을 이어

갔다. 행사장 내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 대화용기 사용을 적극 활용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방문객들에게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장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생각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순간에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살 같은 일하고 싶은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내고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작지만 의미 있는 문장은
 기억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몇 장이나 될까.
 새삼처럼
 잠시
 현재의 미래와 걸려낼 수 없는 것이긴
 풍성한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늠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단'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언다
 잘될 테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